여소야대 3당체제 '모의고사'…'협치' 이뤄낼까

여야 3당 20일부터 한달간 4월 임시국회 합의

3당 원내대표 회동서 결정
"민생·경제활성화법안 등 협의"
국민의당 주도권 선점 관심
이상돈 "선거·공천제 논의부터"

여야 3당은 오는 20일부터 한 달간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18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4·13 총선 후 첫 회동을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창당했던 국민의당이 공식적인 여야 원내협상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4월20일~5월20일로, 5월 초·중순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계류 안건을 처리키로 했다.

원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 브리핑에서 "현재 3당 원내대표 임기가 19대 국회 마지막까지로서 이번 국회까지는 3당 원내대표가 모든 일을 마무리하게 된다"면서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각 당이 민생법안, 경제활성화법안이라는 법안 중 꼭 통과시켜야 할 법안을 몇 개씩 정해 3당 수석부대표가 실무적인 협의를 하기로 했다"면서 "가급적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이 안건조정위에 있는데 이는 각 당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장실에서 진행된 이날 회동에서 정 의장은 세 당의 원내대표가 모두 총선에서 생환한 데 대해 축하인사를 건네는 것으로 시작하는 등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번 회동에서는 20대 국회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된 국민의당의 높아진 위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원내대표들의 모두발언 순서가 되자 원 원내대표는 "(더민주가) 제 1당이 되시지 않았나"라며 순서를 양보했다. 그러자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원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됐다"며 원 원내대표에게 다시 마이크를 넘기려고 했다.

한참 '교통정리'를 거친 끝에 첫 발언은 임시국회를 처음 제안한 국민의당 주 원내대표에게 돌아갔다.

주 원내대표는 "여야가 서로 한발씩 물러나 19대 국회를 잘 마무리해야 한다"며 "양당제에서 한 당이 (새로) 들어가면 조정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국민의당의 조정자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당 이상돈 전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2012년 대선과 총선 과정 때부터 여야가 정치개혁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국 하나도 된 게 없다"며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제도, 정당 공천제도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 대선이 있어서 앞으로 1년이 지나면 안 된다. 이후에는 지방선거도 있다"며 "시간이 없다. 올해부터 내년 여름 사이에 하지 않으면 또 못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전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보완, 정당 공천 법제화를 위해 정치개혁특위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안철수·천정배 환한 웃음 국민의당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와 지도부들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원내 1당 올라섰지만…호남 참패로 반쪽 승리"

더민주 총선후 첫 비대위 회의…김종인 대표 25일 광주 방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13 총선에서 참패한 광주를 오는 25일 방문하기로 하는 등 호남민심 되찾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수도권과 영남에서 선전하면서 제1당이 됐지만 전통적 지지세력인 호남 없이는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제2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호남 참패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수도권에서 압승해 원내 1당에 올라섰다고는 하지만 호남을 전부 잃다시피 하면서 반쪽 승리가 됐다"고 평가했다.

호남 당선인 3명 중 1명인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비대위원은 "국민이 수도권에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했지만 호남에서는 더민주를 심판했다"고 말했고, 이춘석(전북 익산갑) 비대위원은 "저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겠다"고 다짐했다.

이밖에 "호남 참패는 60년 정통야당의 위기이자 제1야당 심장부의 마지막 경고다"(양승조), "전통적 지지층인 호남에서 준엄한 회초리를 든 것을 냉정히 직시해야 한다"(정성호)는 등 발언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더민주는 오는 20일 당선인 대회를 열고 25일부터 김종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호남과 충청, 부산 등 권역별로 낙선인사를 겸해 방문하기로 했다. 첫 방문지는 광주다.

더민주는 애초 김 대표가 26일 광주를 방문한다고 공지했지만 25일로 하루 앞당겼다. 지도부가 최대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일정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예고 없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신안군 하의도를 방문, '정계은퇴 논란'의 해법을 찾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일각에서는 문 전 대표의 이날 행보를 두고 '정면돌파' 의지를 굳힌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문 전 대표가 김 전 대통령 생가에 이어 19일엔 봉하마을까지 방문키로 하자 일각에서는 "대권 행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朴대통령 국정방향 바꾸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

안철수 대표 "독단·독주 버리고 대화와 설득 나서야"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18일 "박근혜 대통령부터 독단과 독주 대신 대화와 협력으로 근본적 국정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마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13 총선의 민심은 반성하란 것이다.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이제는 좀 다르게 하란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안 대표는 또 "국회 탓만 말고 이제는 국회를 존중하고 대화와 설득에 나서야 한다. 설득하지 못하면 타협할 줄도 알아야 한다"며 "이젠 좀 다르게 해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국민을 위해 최소한의 도리를 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대해서도 "(민심은) 일 안 하는 국회는 반성하란 것이다. 국민의당에 대한 과분한 지지는 저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저희라도 균형잡고 제대로 일하는 국회로 이끌라는 명령"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9대 국회는 지금이라도 남은 40일간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 여러 현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가져와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 대표는 "20대 국회는 임기 시작일인 5월 30일까지 원 구성 준비를 완료해야 한다. 일 안하고 세비를 받는 부끄러운 출발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당리당략을 앞세우지 않으면 합의할 수 있다. 민심을 왜곡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안 대표는 총선공약점검특별위원회 설치를 거듭 요구하고 "당장 합의할 수 있는 공약은 20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입법해야 한다. 그게 국회가 최소한의 밥값을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또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 징후에 대해 "어떤 종류의 무기도, 군사도발도 북한의 활로가 될 수 없음을 경고한다.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는 핵실험을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제3자처럼 관찰, 보고하면서 사실은 속수무책인 상황을 언제까지 끌고갈지 걱정"이라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오는 19일 19대 의원단 오찬에 이어 오는 26일 1박 2일 일정으로 20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영선 "당대표 출마 고민해볼 필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18일 자신의 당권 도전 문제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 출연, "내년에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 당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기준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돼야 한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종인 합의추대'와 경선 중 어느 것이 좋겠느냐는 질문에 "여론을 더 들어보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김종인 대표가 당의 변화를 이끌 후보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후보군 중 한 명이다. 그 후보군이 몇 분 더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 선거전 전패 배경에 대해 "공천이 너무 새 바람만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라며 "제가 광주의 전통적인 50대 이상 유권자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공천이 필요하다고 비대위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호남 완패에 대한 문재인 전 대표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결과론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랬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여러가지 아쉬움이 남지만 그것은 문 전 대표 스스로 결정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정청래 의원이 오히려 김종인 대표의 책임론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지금에 와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